

1988 學年度 新入生集團特性에 關한 調查研究 = 光州保健專門大學의 境遇 =

교 양 과 金 亮 奕
교 양 과 李 剛 煦
전임강사

I. 緒 言

大學의 理念은 새로운 眞理의 창출을 위한 研究 및 傳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大學이 단순한 知識傳授의 전당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大學은 참된 知性의 養成을 위해서 상당한 教養教育 및 人間教育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새로 大學人이 되는 新入生에 관한 정보는 大學教育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教育이란 주어진 素材가 갖는 可塑性을 發見시키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볼 때, 新入生이란 教育素材가 어떤 가소성을 갖느냐를 아는 것은 장차 어떤 教育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짐작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大學新入生들이 접하게 될 대학환경은 이들이 생활해 온 과거 때보다 많은 적응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즉 신입생에게는 새롭게 접하는 學科目으로 인한 知的 領域에서의 문제, 生活의 自由 및 自律과 그에 병행되는 제반 책임문제 등이 따르게 되는데, 이때 자칫하면 확고한 自己正體感 (self-identity)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이들에게 社會的 情緒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專攻分野의 학업성취에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자체의 해결이 全人的 側面에서의 個個人의 成長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다.

大學은 이러한 新入生들의 心理的 特殊性에 주목하여 이들이 가급적 빨리 大學生活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學生 個個人을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 集團의 전반적인 性格을 파악, 조감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대지 必要性에서 본 大學에서는 설문지를 통하여 본교 新入生들이 어떤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을 갖고 있으며, 어떤 동기로 본교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얼마나 만족하며, 무엇을 고민하고 알고 싶어하며, 앞으로의 大學生活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등을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新入生 特性에 관한 조사 연구는 당해년도의 신입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매해 신입생들에게 실시하면 新入生 特性變化를 時間次元에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大學의 教育政策樹立과 學生指導計劃에 基礎資料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研究方法 및 内容

1. 研究對象 및 分析資料

1988학년도 신입생 전원이 이 研究의 對象이다. 本 年度의 新入生 總數는 1,040名인데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누락자 40名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000名이 分析되었다.

2. 研究 内容

本 研究에서 사용된 設問紙는 “新入生設問調查”의 명칭으로 학생들의 大學生活을 듣기 위한 基礎資料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調査領域은 ①一般的特性 ②家族關係 ③經濟狀況 ④對人關係 ⑤高校生活 ⑥大學專攻 ⑦大學生活 ⑧生活哲學 및 進路의 8個領域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一般的 特性

- (1) 年 齡
- (2) 주된 成長地
- (3) 居住形態
- (4) 宗 教

2) 家族關係

- (1) 保護者와의 關係
- (2) 保護者의 年齡
- (3) 保護者와의 學歷
- (4) 保護者와의 職業
- (5) 家族 數
- (6) 父母生存與否
- (7) 家族中 相議者
- (8) 父母와의 關係 圓滿度
- (9) 父母의 關心度

3) 經濟狀況

- (1) 家庭의 總月收入
- (2) 學費主負擔者
- (3) 學費充足度

4) 對人關係

- (1) 願하는 親舊類型
- (2) 世代差有無
- (3) 討論主題

5) 高校生活

- (1) 出身高校 所在地
- (2) 再修經驗

6) 大學專攻

- (1) 大學進學의 一般的 理由
- (2) 學科志望理由
- (3) 志望學科決定 影響源
- (4) 志望學科決定時 考慮要因
- (5) 志望學科에 대한 情報源
- (6) 專攻學科 理解度
- (7) 專攻斗 適性
- (8) 專攻持續與否

7) 大學生活

- (1) 大學生活 主力方向
- (2) 當面 不安問題
- (3) 希望 課外活動分野
- (4) 大學生의 任務
- (5) 學生의 社會參與
- (6) 教授에 대한 期待
- (7) 餘暇時間 利用

8) 生活哲學 及 進路

- (1) 生活價值觀
- (2) 窮極的 價值

(3) 韓國社會의 最優先課題

(4) 大學卒業后 計劃

3. 資 料 處 理

本研究의 모든 資料는 電算處理하였으며, 각 문항을 性別 學科別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무응답자는 제외하였다.

통계적 처리는 단순백분율%의 단순 비교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이나 변량분석등을 병행하지 못한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또 과거에 매년 調査 分析된 新入生實態調查 分析資料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 추세분석을 할 수 없었다.

III. 結果 및 解釋**1. 一般的 特性**

新入生의 一般事項領域에서는 年齡, 주된 成長地, 居住形態, 宗教가 취급된다. 이러한 特性들은 新入生들의 基本特性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들을 性別 學科別로 集計하면 다음과 같다.

1) 年 齡

신입생들의 연령분포는 表<1>과 같다. 전체 出生年度別로 보면 1969년생이 40 %이고 1970년생이 23.7 %, 1968년생이 19.7 %이다. 1969년생을 入學適年으로 보면 適年以前出生이 34.1 %, 適年以后出生이 25.8 %이다.

性別로 보면 適年以前出生은 남학온(55.6%)이 여학생(21.1%) 보다 훨씬 많다. 반면 適年이라 볼 수 있는 1969년생은 여학생(44.9%)이 남학생(31.9%) 보다 훨씬 많다. 適年以后出生의 경우는 여학생(34.2%)이 남학생(12.3%) 보다 많다.

學科別로 보면 1969년생을 입학적년으로 볼 때 간호과(54.4%)가 가장 많으며, 안경광학과(26.7%)가 가장 적다. 適年以前出生인 과년한 신입생은 식품가공과(53.9%)가 가장 많으며 適年以后出生은 식품영양과(40.3%)가 가장 많다.

2) 주된 成長地

表<2>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직할시(49%)가 가장 많다. 다음이 읍·면(농촌)(39%), 중·소도시(9.3%), 도서(2.7%) 순이다.

性別로 보면 여학생(51.9%)이 남학생(44.1%) 보다 광주출신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學科別로 보면 광주가 주된 성장지인 경우는 식품영양과(57.1%)와 유아교육과(65.4%)

<표1> ■ 생년도

1988學年度 新入生集團特性에關한調查研究

5

집단 (사례 수)	전체 998	성별 남	성별 여	학 제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79	78	79	78	79	78
1947년생	1	1	0.3					1	1.3										
54	1	1	0.3					1	1.3										
59	0.1	0.3						1	1.3										
60	3	3	0.3	1	1.3	1	1.3	1	1.3										
61	3	3	0.8					1	1.3										
62	9	8	1					1	1.3										
63	15	14	1					1	2										
64	29	26	3	0.2	0.2	0.2	0.2	1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65	16	13	3	0.7	0.2	1.3	1.3	1	1.7	1.7	2.6	2.6	2.6	2.6	2.6	2.6	2.6	2.6	2.6
66	22	14	8	1	4	4	4	1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67	44	17	27	6	1	4	4	4	8	8	3	3	3	3	3	3	3	3	3
68	197	109	88	10	26	27	15	11	29	13	20	13	20	13	20	13	20	13	20
69	399	120	279	29	24	44	36	36	36	39	34	30	43	34	30	43	34	30	43
70	237	45	192	31	11	25	16	23	27	19	9	24	21	11	20	11	20	11	20
71	20.0	1	19	40.3	14.3	21.7	20.0	28.4	23.3	24.1	11.4	30.8	26.6	17.7	26.7	17.7	26.7	17.7	26.7
73	2.0	0.3	3.1	1	1	0.9	2.5	2.5	0.9	5.1	4	3	1	2	1	2	1	2	1
	0.1	0.1	0.2					1	1.3										

가 많고, 광주출신이 적은 경우는 보건행정과 (39.7 %), 환경위생과 (39.8 %) 등이다.

3) 居住形態

신입생들의 거주형태는 表<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택이 61.3 %이고 자취가 26.9 % 친척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7.8 %, 하숙이 3.4 %, 독서실·사무실 등에 기거하는 학생이 0.5 % 順이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 (55.9 %)보다 여학생 (64.7 %)이 자택에 더 많이 거주한다.

學科別로 보면 자택거주 학생이 가장 많은 학과는 유아교육과 (78.2 %)이며, 가장 적은 학과는 보건행정과 (47.4 %)이다.

4) 宗 教

表<4>에서 보듯이 종교가 없는 경우가 45.3 %로 가장 많으며, 있는 경우 (54.7 %)에는 기독교 (33 %), 천주교 (10.7 %), 불교 (8.6 %), 민족종교 (기타) (1.3 %), 유교 (1.2 %) 順이다.

性別로 볼 때 기독교의 경우 여학생 (36.2 %)이 남학생 (27.7 %)보다 많다. 불교와 천주의 경우만을 볼 때 남학생은 불교를 여학생은 천주교를 더 선호하고 있다.

學科別로 볼 때 기독교의 경우 유아교육과 (47.4 %)와 임상병리과 (45.6 %)가 가장 많으며 보건행정과 (20.5 %), 식품가공과 (24.7 %), 안경광학과 (27.6 %)가 적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안경광학과 53.9 %, 식품가공과 51.9 % 순으로 많다.

2. 家族關係

新入生들의 家族關係는 家庭의 經濟的 狀況과 관련된 實態를 제외한 諸般事項에 걸쳐서 調查되었다. 調查內容은 保護者와의 關係, 保護者の 年齡, 保護者の 學歷, 保護者の 職業, 家族數, 父母生存與否, 家族中 相議者, 父母와의 關係 圓滿度, 父母의 關心度 등이다.

1) 保護者와의 關係

學生에 대해서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은 保護者이다. 新入生들의 保護者를 부 혹은 모, 형 (언니, 누나, 오빠), 조부모, 친척,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集計한 것이 表<5>이다.

新入生 全體를 보면 保護者가 父 혹은 母인 경우가 97.7 %로 대다수이며, 형 (언니, 누나, 오빠)인 경우가 1.5 %이며 나머지 경우는 거의 없다.

性別로 보면 보호자가 형인 경우는 남학생 (3.5 %)이 대부분이며 여학생 (0.3 %)은 극소수이다.

學科別로 보면 보호자가 형 (언니, 누나, 오빠)인 경우는 식품가공과 5.2 %, 치과기공과 4.8 %이다.

〈표 2〉 지금까지 당신의 주된 성장지는?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수 량 618	성 별		학 년			과 목			별 과			명,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현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81	물리치료 115	보건행정 78	방사선 78	유아교육 78	간호 78	체육기공 61	인정광학 75			
1. 광주직할시	486	165	321	44	33	46	42	41	55	31	35	51	39	31	39
2. 시	92	43	49	7	10	14	5	3	15	7	7	5	7	3	9
3. 은평구(부산)	387	154	233	23	33	49	28	35	43	38	34	19	34	27	24
4. 도 시	39.0	41.2	37.7	29.9	42.9	43.4	35.4	43.2	37.4	48.7	43.6	24.4	42.5	44.3	32.0
	27	12	15	3	1	5	4	2	2	2	3	0	0	0	3
	2.7	3.2	2.4	3.9	1.3	4.5	5.1	2.5	1.7	2.6	3.8	0	0	0	4.0

〈표 3〉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수 량 620	성 별		학 년			과 목			별 과			명,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현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81	물리치료 116	보건행정 78	방사선 79	유아교육 78	간호 78	체육기공 80	인정광학 76			
1. 자 택	611	210	401	51	40	63	43	53	67	37	53	61	52	40	51
2. 자 취	268	100	168	21	17	36	30	21	40	29	12	13	20	16	13
3. 하 숙	34	23	11	0	9	5	2	0	2	4	2	1	1	1	6
4. 친 척	78	38	40	5	10	8	3	7	6	10	9	2	7	5	6
5. 누 서 실 사무실	7.8	10.1	6.5	6.5	13.0	7.1	3.8	8.6	5.2	12.8	11.4	2.6	8.8	8.1	7.9
	5	5	0	1	1	0	0	1	0	1	0	0	0	0	0
	0.5	1.3	0	1.3	0.9	1.3	0	0.9	0	1.3	0	0	0	0	0

<표 4>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집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 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명, %
총	994	376	618	77	77	113	79	35	36	28	81	116	78	16	25	32.8	20.5	32.1	17	10	1.3	10	47.4	34.2	27	21	33.9	27.6		
1. 기독교	328	104	224	25	19	45.6	34.6	31.0	24.7	30.5	34.6	34.6	32.8	32.8	38	116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6
2. 불교	85	47	38	3	12	10	3	12	10	3	5	9	17	10	1	5	6	6	6	1	5	6	1	5	6	6	6	4		
3. 천주교	106	28	78	13	5	13	4	13	5	13	4	9	11.1	11.1	7	4	10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4. 유교	12	9	3	0	0	0	0	0	0	1	1	1	3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5. 민족종교 (기타)	13	9	4	0	1	1	1	1	1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없음	450	179	271	36	40	54	34	38	54	34	38	52	36	35	36	52	44.8	46.2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44.9	

<표 5>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집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 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명, %
총	995	375	620	77	77	113	79	112	76	81	81	116	78	78	78	78	117	114	97.4	100.0	94.9	98.7	77	77	91.5	95.2	95.2	97.4		
1. 부모	972	357	615	77	73	99.1	96.2	100.0	94.8	99.1	96.2	100.0	97.4	100.0	94.9	94.9	100.0	97.4	3	2.6	1	1	1	1	1	1	1	1	1	
2. 형, 언니, 누나, 오빠	15	13	2	1.5	3.5	0.3	2	1	1	1.3	1.3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3. 조부모	0.2	0.2	0.3	2	1	1	0.9	1	1	0.9	1	1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4. 친척	3	2	0.5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5. 기타	3	3	0.8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2) 保護者의 年齡

新入生들의 態度나 價値形成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保護者의 年齡은 중요하다. 年령차가 많은 경우 보호자와의 對話가 이루어지기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연령을 集計한 결과가 表<6>이다.

여기서 보면 50代의 보호자가 54.1%, 40代가 32.3%, 60代가 11.2%이며 나머지는 극소수이다.

性別로 보면 비교적 젊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40代는 남학생 (20.5%)보다 여학생 (39.4%)의 경우가 더 많다. 반면 50代以后로 갈수록 남학생의 보호자가 더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40代 보호자는 간호과 (48.8%), 식품영양과 (48.1%)에서 많으며, 50代는 유아교육과 (62.8%)가 가장 많으며 60代는 방사선과 (20.3%) 및 식품가공과 (15.6%)에서 많다.

3) 保護者의 學歷

表<7>을 보면 高卒이 38%, 中卒이 25.5%, 國卒以下·漢文修學·無學이 21.1%, 大卒以上이 15.5% 등이다.

性別로 보면 여학생의 보호자가 남학생의 보호자 보다 학력이 높다. 고졸의 경우 남학생은 30%, 여학생은 42.8%, 대졸의 경우 남학생은 12.5%, 여학생은 17.3%로 나타나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유아교육과의 30.8%가 대졸이상의 보호자를 갖고 있어 가장 학력이 높다. 식품영양과도 타과에 비해 보호자의 학력이 높은 편이다(고졸이 55.8%, 대졸이 16.9%). 반면 치과기공과와 방사선과는 학력이 낮다.

4) 保護者的职业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직업을 분류하여 집계한 결과는 表<8>과 같다.

表에서 보면 보호자의 직업은 농·어민·축산업 (29.3%)이 가장 많고, 다음 자영업·상업 (26.7%), 공무원 (12.4%), 회사원 (은행원) (7.3%), 초중고교사 (4.8%), 건축업 (4.7%), 전문직업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3.6%) 등의 順이다.

성별로 보면 농어민·축산업의 경우 남학생 (38.2%)이 여학생 (23.9%)보다 훨씬 많다. 또 보호자의 직업이 자영업·상업인 경우는 여학생 (29.4%)이 남학생 (22.2%)보다 많다.

學科別로 보면 농어민·축산업의 경우 식품가공과 (39.5%), 방사선과 (38.5%)에서 많으며, 자영업·상업의 경우 안경광학과 (42.2%)에서 가장 많다. 또 공무원의 경우 유아교육과 (23%)에서 많고, 회사원 (은행원)의 경우는 임상병리과 (13.9%), 간호과 (12.7%)에서 많다. 초중고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과 (10.3%), 간호과 (8.9%)에서 비교적 높게 나

<표6> 보호자의 연령은?

집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학 제			부 부			부 부			연령 %	
		남	여	식품영양	식품영양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 선	유아 교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1. 20대	6	5	1	1	1	0.9		1	1.7	1.3					1.3
2. 30대	9	8	1	2	2.6	1.3		2	1	1.3	2.5				1.3
3. 40대	322	77	245	37	15	32	31	28	30	27	14	24	39	20	25
4. 50대	539	215	324	35	46	62	39	44	68	43	47	49	32	33	41
5. 60대	54.1	57.3	52.1	45.5	59.7	54.4	50.0	54.3	58.1	55.1	59.5	62.8	40.0	53.2	53.9
6. 70대이상	9	5	4	1	1	4	12	15	7	8	15	6	16	5	8
총	997	375	622	77	114	78	81	117	78	79	78	80	62	76	

<표7> 보호자의 학력은?

집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학 제			부 부			부 부			연령 %	
		남	여	식품영양	식품영양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 선	유아 교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1. 무 학	15	13	2	2	1	1	1	3	1	1	1	1		4.8	2.6
2. 초등수학	26	16	10	3	4	3	1	5	2	3	1	1		3	1
3. 국중1학	169	86	83	4	15	22	14	11	17	17	24	6	17	9	7
4. 중 졸	25.5	27.1	24.6	22.1	19.5	25.0	22.8	23.5	28.2	19.2	25.3	24.4	27.5	41.9	28.9
5. 고 졸	378	113	265	43	31	42	30	33	40	34	19	28	30	15	33
6. 대졸이상	154	47	107	13	11	15	13	10	19	9	12	24	11	6	11
총	996	377	619	77	112	79	81	117	78	79	78	80	62	76	

<표 8> 보호자의 직업은 어느 분야에 속합니까?

점 단 (자리수) 합	직 체	성 별		식품영양 77	식품가공 76	화장위생 79	임상병리 79	치과위생 81	물리치료 115	보건행정 77	방사선 78	유아교육 78	간 79	호 79	치과기공 62	인경광학 76	%
		남	여														
1. 공무원	121	36	85	11	9	9	11	11.0	18.4	13	16.8	7	18	4	5	6	
2. 초·중·고교사	12.4	10.8	13.5	14.2	5	6	3	2	2	7	2	5.0	8.0	7.9	4	2	
3. 어린이	4.8	3.7	5.5	6.5	7.9	2.7	2.5	2.5	6.0	2.6	1	10.3	8.9	6.5	2.6	1	
4. 문화·예술인	9	1	8	4													1.3
5. 회사원 (은행원)	72	24	48	8	5	9	11	5	6	4	2	1	1.3	1.3	1.3	4	5.3
6. 기업인	14	4	10	2	3	6.6	8.0	13.9	6.2	5.2	5.2	2.6	6.4	10	3	4.8	4
7. 전문직업인 (의사·약사)	36	17	19	1	4	3	3	3	6	1	2	1	1.3	12.7	12.7	12.7	5.3
8. 자영업·상인	264	83	181	23	11	28	20	25	23	26	16	22	22	16	32	32	32
9. 노동·어민· 농·수산업	26.7	22.2	29.4	29.9	14.5	25.0	25.3	30.9	20.0	33.8	20.5	28.2	27.8	25.8	42.2	42.2	42.2
10. 교원·경찰	290	143	147	16	30	39	21	22	40	22	30	12	19	19	22	22	22
11. 종교인	10	3	7	2	34.8	26.6	27.2	34.8	34.8	28.6	38.5	15.4	24.1	24.1	35.5	35.5	35.5
12. 노동자	5	1	4	1	1.8	1.3	0.9	1	1	1	2	2	2	2	1	1	1.3
13. 교수·연구원	1	0.5	0.3	0.6	1	3	1	1.3	1	1.3	1	3.8	1	1.3	1	1.3	1.3
14. 건축업	47	14	33	4	5	3	3	3	9	1	7	3	5	2	1	1.3	1.3
15. 무직	33	16	17	5.2	5.3	4.5	3.8	3.7	8.0	1.3	8.9	3.8	6.4	3.2	4	5	5
16. 기타	25	6	19	1	1	5	1.8	5.0	1.2	5.2	1.3	3.8	5.0	6.5	6.6	6.6	6.6

타났다.

5) 家族數

家族數의 多寡는 家庭構成의 複雜性을 반영하므로 學生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表<9>를 보면 7名 이상의 가족이 가장 많고 (34.7 %), 6名 (32 %), 5名 (22.8 %), 4名, 3名이 하 가족 순이다.

性別로 보면 5名이하의 家族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6名이상의 家族은 여학생의 경우에 많음을 알 수 있다.

學科別로 보면 치과기공과 (7명이상 家族이 43.5 %) 와 방사선과 (7명이상 가족이 42.3 %) 가 가족수가 가장 많다.

6) 父母生存與否

新入生들의 父母生存與否를 정리하면 表<10>과 같다.

新入生 全體로 보면 兩父母生存이 89.4 %이고 偏母가 9.5 %, 偏父가 0.6 %, 父母死亡이 0.5 %이다.

性別로 보면 兩父母生存의 경우는 여학생 (92.4 %)이 남학생 (84.3 %)보다 많다. 또 偏母의 경우는 남학생 (14.1 %)이 여학생 (6.8 %)보다 많다.

學科別로 보면 兩父母生存은 유아교육과 (96.2 %), 치과기공과 (95.1 %), 식품영양과 (94.8 %) 등으로 여학생만 있는 科에서 높으며, 偏母의 경우는 치과기공과 (19.4 %)가 가장 많다.

7) 家族中 相議者

家族中 相議對象이 되는 사람이 新入生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個人的인 일을 누구와 상의하는가 질문하였다. <表11>

全體 新入生의 家族中 相議者가 형제·자매인 경우 (35.5 %)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어머니 (32 %), 의논안함 (20.2 %), 아버지 (11.9 %)로 나타났다. 부모중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상의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어머니나 아버지와 상의하는 경우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데 반해, 여학생은 어머니와 상의하는 경우 (36.8 %)가 아버지와 상의하는 경우 (6.8 %) 보다 훨씬 많다. 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의논을 안하는 경우는 임상병리과 (31.3 %) 와 안경광학과 (27.6 %)가 가장 많다.

8) 父母와의 關係 圓滿度

新入生들이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圓滿度를 어떻게 知覺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表<

<표 9>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수는?

집 단 (세례수) 합 계	전체 남 여	성 별	학 교 부 분							병 부 분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체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1. 3명이하	26	16	10	2	1	2	0.9	2.6	1.2	2.6	3.8	0.0	3.8	8.1	5	62	76
2. 4명	78	41	4.3	1.6	2.6	3	7	9	1	9	5	7	7	7	7	8	2.6
3. 5명	7.8	11.0	6.0	3.9	9.2	7.8	9.0	1.2	7.8	6.5	9.0	9.0	10.0	11.3	11.3	10.5	20
4. 6명	227	95	132	14	15	31	18	21	32	17	12	20	13	14	14	26.3	26.3
5. 7명이상	345	115	230	28.6	34.0	37.7	31.6	27.8	29.5	37.0	31.9	44.2	29.5	34.6	35.0	14.5	28.9
합 계	994	374	620	77	76	115	78	81	116	77	78	0	3	3	5	62	76

<표 10> 부모님의 생존 여부는?

집 단 (세례수) 합 계	전체 남 여	성 별	학 교 부 분							병 부 분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체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1. 모두 생존해 계신다	890	317	573	73	66	104	80	81	117	78	65	75	71	49	79.0	66.8	66
2. 아버지만 생 존해 계신다	89.4	84.3	92.4	94.8	85.7	92.9	86.3	95.1	90.6	88.5	83.3	96.2	88.8	71	62	76	86.8
3. 어머니만 생 존해 계신다	6	3	1	1	2	1.3	1.8	1.1	4	10	9	2.6	3.8	8	12	10	10
4. 모두 안계 신다	9.5	14.1	6.8	3.9	11.7	5.4	13.7	4.9	8.5	11.5	12.8	1.1	1	1	1	1.6	13.2
합 계	996	376	620	77	112	90	78	81	106	69	65	75	71	49	79.0	66	66

<표 11> 평소에 개인적인 문제 ■ 가족중 누구와 의논합니까?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남 여	성 별				학 제				과 별				영. %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1. 아버지	119	77	42	6	15	17	4	3	13	8	18	5	9	10
2. 어머니	319	91	228	34	26	33	21	27	31	26	21	6.5	11.4	16.1
3. 형제·자매	354	114	240	26	23	41	30	36	50	29	23	27.3	39.0	38.0
4. 조부모	3	2	1	•	•	•	•	•	•	1	2	2.6	31.2	38.0
5. 의논안함	201	93	108	11	13	24	25	15	23	14	13	2.6	18	10
	20.2	24.7	17.4	14.3	16.9	20.9	31.3	18.5	19.7	17.9	16.9	23.4	12.7	22.6
														27.6

<표 12>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남 여	성 별				학 제				과 별				영. %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1. 매우 원만하 다	348	140	208	28	26	37	29	24	48	22	31	23	33	24
2. 비교적 원만 하다	34.8	37.1	33.4	36.4	33.8	32.2	36.3	29.6	41.0	28.2	39.2	29.5	41.3	31.6
3. 그쳐 그렇다	461	164	297	34	39	55	33	41	49	41	35	41	31	27
4. 원만한 데도 있다면 그렇다 못한 데가 더 많다	46.1	43.5	47.7	44.2	50.6	47.8	41.3	50.6	41.9	52.6	44.3	52.6	38.8	44.3
5. 관계가 좋지 않다.	117	36	81	12	4	14	15	9	6	11	7	11	12	6
	11.7	9.5	13.0	15.6	5.2	12.2	18.8	11.1	5.1	14.1	8.9	14.1	15.0	9.8
														13.2
														76

12)에서 정리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원만하거나(46.1%) 매우 원만한 경우(34.8%)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이 그쳐 그렇다(11.7%), 원만하지 못한 때가 더 많다(6.8%), 관계가 좋지 않다(0.5%) 순이다.

性別로 보면 원만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남학생이 더 많다.

學科別로 보면 비교적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의 수치가 높은 과는 식품가공과, 물리치료과, 치과위생과 등이다. 식품영양과, 임상병리과, 유아교육과 등은 가장 부모와 문제가 없는 과들로 보여진다.

9) 父母의 關心度

表<1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관심이 높은 경우가 74.8%, 그저 그렇다가 12.9%, 관심이 지나치다는 경우가 8.7%, 비교적 낮은 경우가 2.8%, 너무 무관심하다가 0.8% 등이다.

性別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가 더 부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의 관심이 너무 커서 부응하기 힘든 경우는 오히려 남학생 쪽이 많다.

學科別로 보면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식품가공과(9.1%)가 가장 많다. 반면 관심이 너무 커서 부응하기 힘든 경우는 안경광학과(14.5%)와 임상병리과(12.7%)가 많다.

3. 經 濟 狀 況

新入生들의 家庭經濟狀況에서는 新入生들의 大學生活과 直接 關係되는 經濟的 事項이 分析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項目은 家庭의 總月收入, 學費主負擔者, 學費充足度 등이다.

1) 家庭의 總月收入

新入生들이 自己의 收入이 아닌 家族의 月收入을 正確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느끼는 月收入 限界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集計結果는 表<14>와 같다.

전체로 보면 30 萬원 미만이 26.6%, 30 萬원대가 26.5%, 40 萬원대가 17.8%, 50 萬원대가 12%, 60 萬원대가 6.1%, 70 萬원대가 4%, 80 萬원 이상 90 萬원대가 3.8%, 100 萬원 이상이 3.2%로 나타났다.

性別로 볼 때, 여학생 가정의 수입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學科別로 볼 때 30 萬원 미만을 놓고 볼 때 임상병리과가 40.5%, 안경광학과가 34.2%, 방사선과가 32.5%를 차지하고 있어 곤란한 학생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 식품영양과(11.1%)와 유아교육과(13.2%)가 비교적 가정의 수입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기대나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부모님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기대나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비 례 법 법,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의학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1. 너무 무관심	8	4	4	1	1	•	2	•	1	2	•	1	1	•	•	•	•	
하다.	0.8	1.1	0.6	1.3	1.7	1.7	2	3	•	3	1	2	3	2	•	4	5.3	
2. 비교적 관심	28	16	12	1	7	2	3	•	81	117	78	78	78	1.3	2.6	3.8	2.5	5.3
이 높다	2.8	4.3	1.9	1.3	9.1	1.7	3.8	14	13	18	13	11	6	11	10	6	9	9
3. 그저 그렇다.	128	37	91	12	5	14	13	18	13	11	11	6	11	10	6	6	9	11.8
4. 비교적 관심	745	277	468	65	6.5	12.2	16.5	22.2	11.1	14.1	7.7	14.1	12.5	10.0	10.0	52	52	52
이 높다	74.8	73.9	75.4	71.4	76.6	74.8	67.1	75.3	75.2	80.8	76.9	73.1	78.8	80.0	80.0	68.4	68.4	68.4
5. 너무 커서 부응하기 힘 들다	87	41	46	8	6	11	10	1	11	3	9	6	5	6	6	11	11	14.5
	8.7	10.9	7.4	10.4	7.8	9.6	12.7	1.2	9.4	3.8	11.5	7.7	6.3	10.0	10.0			

<표 14> 당신 가정의 총 월수입은?

집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학 연			과 학			별			인정 광학 치과기 76	
		남	여	식 품 영 양	식 품 가 공	현 경 위 생	임 상 병 려	치 과 외 생	물 리 치 료	보 건 행 정	방 사 선	유 아 교 육	간 호		
총	970	373	597	72	76	33	30	15	34	20	25	10	17	18	26
1. 30월이면 출	258	137	121	8	22	33	30	15	29.1	27.4	32.5	13.2	21.5	30.0	34.2
2. 30~40만원	26.6	36.7	20.3	11.1	28.9	29.5	40.5	19.2	40	23	15	14	26	21	19
3. 40~50만원	257	99	158	15	13	29	13	29	37.2	34.2	31.5	19.5	18.4	32.9	35.0
4. 미만	26.5	26.5	26.5	20.8	17.1	25.9	17.6	20	6	11	20	13	19	12	9
5. 50~60만원	173	52	121	17	15	19.7	17.9	8.1	25.6	9.4	27.4	16.9	25.0	15.2	14.5
6. 60~70만원	116	28	88	10	15	13	7	9	14	4	12	12	11	3	6
7. 미만	12.0	7.5	14.7	13.9	19.7	11.6	9.5	11.5	12.0	5.5	15.6	15.8	13.9	5.0	7.9
8. 70~80만원	59	22	37	5	3	6	9	.	6	4	4	9	5	2	6
9. 미만	6.1	5.9	6.2	6.9	3.9	5.4	12.2	5.1	5.5	5.2	11.8	6.3	3.3	7.9	
10. 80~100	39	13	26	8	2	7	2	3	2	2	3	6	2	1	1
11. 미만	4.0	3.5	4.4	11.1	2.6	6.3	2.7	3.8	1.7	2.7	3.9	7.9	2.5	1.7	1.3
12. 100만원 이상	37	8	29	5	2	2	5	1	4	.	1	3	6	5	3
13. 만월이면 출	3.8	2.1	4.9	6.9	2.6	1.8	6.8	1.3	3.4	1.3	3.9	7.6	8.3	3.9	
14. 100만원 이상	31	14	17	4	4	2	2	1	6	4	3	.	1	4	4
15. 미상	3.2	3.8	2.8	5.6	5.3	1.8	2.7	1.3	5.1	5.2	5.1	5.2	5.2	5.2	5.3

2) 學費主負擔者<表15>

新入生의 91.6%가 부모가 學費主負擔者이고, 弟姉가 4.2%, 本人이 3.5% 순이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 이외의 사람(형제·자매·본인)에게 학비를 부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科別로 보면 식품영양과(100%), 치과위생과(97.5%), 보건행정과(96.2%), 유아교육과(96.2%), 간호과(95%) 등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에게 학비를 의존하고 있으며, 방사선과가 부모이외의 사람에게서 가장 학비조달을 많이 받고 있다(형제·자매 12.7%, 본인 6.3%).

3) 學費充足度

表<16>을 보면 약 60%가 學費充足을 할 수 있다고 반응했으며 약 40% 정도가 조금 부족하거나 많이 부족할 것으로 응답했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22.3%)이 여학생(12.6%)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의 수치가 높다.

學科別로 보면 학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는 방사선과(26.9%), 보건행정과(26.9%), 임상병리과(25.3%) 등이며,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가장 없는 과는 유아교육과와 식품영양과라고 할 수 있다.

4. 對人關係

新入生들의 思考와 行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對人關係에 관한 事實과 知覺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급될 항목은 원하는 親舊類型, 世代差에 대한 意見, 對人關係에 있어 討論主題 등이다.

1) 原하는 親舊類型

表<17>에서 신입생들이 원하는 친구의 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의 意味나 자기의 태도를 實質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는 학생수(47.8%)가 가장 많고 다음이 원만하고 명랑한 사람(37.3%)이고 부지런하고 실용적인 면에 마음을 쓰는 사람(6%), 희생적이고 무엇이나 앞장서는 사람(4%), 지도적이고 조직적 계획을 잘 짜는 사람(2.7%), 예술적·정서적인 사람(2.2%) 순이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은 예술적·정서적인 사람보다(1.3%), 희생적인 사람(6.4%)을 더 원하며 여학생은 그 반대이다.

學科別로 보면 부지런하고 실용적인 사람은 환경위생과(8.7%)에서 선호도가 비교적 높으며 진실한 사람은 치과기공과(56.5%), 간호과(53.8%)에서 비교적 많다. 지도적 조직적인 사람은 식품영양과(5.2%), 식품가공과(5.2%)에서, 원만하고 명랑한 사람은 안경광학과(48%)에서, 예술적·정서적 사람은 유아교육과(5.1%), 임상병리과(5%)에서, 희생

<표 15> 대학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집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학			학			학			학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현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체육	인경광학	
1. 본 일	35	27	8	•	4	2	6	1	5	2	5	2	1	3	4	
2. 부 모	915	311	604	77	5.2	1.3	7.6	1.2	4.3	2.6	6.3	2.6	1.3	4.8	5.3	
3. 형제·자녀	91.6	82.5	97.1	100.0	77	67	108	71	79	105	75	62	75	55	65	
4. 친 친	42	34	8	•	5	5	93.9	89.9	97.5	89.7	96.2	78.5	96.2	88.7	85.5	
5. 조부모	4.2	9.0	1.3	•	6.5	4.3	2.5	•	6	1	10	1	3	4	5	
6. 교외 장학금	3	2	1	•	1	•	1	•	5.1	1.3	12.7	1.3	3.8	6.5	6.6	
	0.3	0.5	0.2	•	1.3	•	1.2	•	•	1	1.3	•	•	•	•	
	1	1	•	•	•	•	•	•	1	•	•	•	•	•	•	
	0.1	0.3	•	•	•	•	•	•	0.9	•	1	•	•	•	2	
	3	2	1	•	•	•	•	•	•	1	1.3	•	•	•	2.6	
	0.3	0.5	0.2	•	•	•	•	•	•	•	1.3	•	•	•	2.6	

<표 16> 앞으로 재학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는 어떤 할 것 같습니까?

집 단 (사례수)	전체	성 별			학			학			학			학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현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체육	인경광학	
1. 많아 것 같다	162	84	78	5	8	17	20	13	18	21	5	8	11	15	15	
2. 좀 것 같다	243	103	140	13	17	36	18	17	25	17	19	12	30	23	16	
3. 거우 좋다	353	115	238	24	27	34	22.1	31.3	22.8	21.4	21.8	24.4	15.4	37.5	21.1	
4.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다	204	64	140	28	22	25	11	17	39.5	40.2	30.8	26.9	51.3	33.8	36.8	
5.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다	36	11	25	7	3	3	1	2	21.0	17.1	16.7	19.2	13	7	15	
	3.6	2.9	4.0	9.1	3.9	2.6	1.3	2.5	6.0	3.8	2.6	3.8	2	1	2	

<표 17> 다음중 어떤 성격을 가진 친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집 단 (시체수)	전체	성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인체공학	%
998	377	621	77	1	6	10	6	5	6	5	5	3	6	3	3	4	5.3
1. 부지런히며 실용적인 면 에 마음을 쓰는 사람	60	33	27	1	7.8	8.7	7.5	6.2	5.1	6.5	6.3	3.8	7.5	4.8	4.8	4.8	4
2. 인생의 의미 나 자기의 태도를 진실 하게 생각하 는 사람	6.0	8.8	4.3	1.3	40	56	34	39	62	31	39	35	43	35	35	35	27
3. 지도책이 능 력을 갖고 조직적인 계 획을 갖춘 는 사람	477	177	300	36	46.9	48.3	48.7	42.5	48.1	53.0	40.3	49.4	44.9	53.8	56.5	56.5	36.0
4. 원만하고 명랑한 사람	27	13	14	4	4	3	1	3	5	1	1	1	2	1	1	1	2
5.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감 각이 예민한 사람	372	125	247	35	23	40	33	31	38.3	34	36	28	33	28	15	15	36
6. 희생적이고 무엇이나 앞 장서는 사람	37.3	33.2	39.8	45.5	29.9	34.8	41.3	38.3	29.1	46.8	35.4	42.3	35.0	42.3	35.0	24.2	48.0

적인 사람은 치과기공과 (9.7 %)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世代差有無

오늘날 세대차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생긴 世代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신입생들이 기성 세대와의 갈등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문의 응답은 表<18>과 같다.

表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차를 심하게 느끼는 학생 (5.2 %)과 대체로 존경할만한 어른이 드물다는 학생 (51 %)을 합치면 55.2 %가 된다. 즉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성세대를 불신하거나 세대차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만 하다는 학생은 42.3 %이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존경스럽다는 학생은 1.5 %에 불과하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교적 세대차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科別로 보면 세대차가 심하여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경우는 안경광학과 (15.8 %)에서 가장 많으며, 반면 어른들이 대체로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만 하다는 경우는 식품가공과 (55.8 %)에서 가장 많다.

3) 討論主題

表<19>에서 보듯이 新入生의 주된 관심问题是 人生問題 (50.5 %), 社會政治問題 (17.1 %), 異性·愛情問題 (16.9 %), 문학·영화·연극 (14.6 %) 등의 순이다.

性別로 보면 社會政治問題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심이 많으며, 문학·영화·연극 등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훨씬 관심도가 높다.

學科別로 보면 人生問題를 제외한다면 방사선과, 식품가공과, 환경위생과 등은 사회·정치 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많으며, 식품영양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과는 이성·애정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유아교육과는 문학·영화·연극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

5. 高校生活

新入生들의 背景을 이해하는데 그들의 高校生活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出身高校所在地, 再修經驗有無 등을 취급하였다.

1) 出身高校所在地

신입생들의 출신고교 소재지를 정리하면 표<20>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광주직할시가 67.3 %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읍면 (농촌) (20.5 %), 시 (11.4 %), 도서 (0.8 %) 순이다.

性別로 보면 광주소재 고교출신은 남학생 (58.7 %)보다 여학생 (72.5 %)이 많다.

學科別로 보면 광주소재 고교출신은 치과위생과 (85.2 %), 유아교육과 (79.5 %), 임상병리과 (76.3 %) 순으로 많고, 가장 적은 과는 식품가공과 (53.2 %)와 환경위생과 (55.8 %)이다.

〈표 18〉 요즘의 기성세대 및 어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성 별	학 부										교 과					병 명,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인정광학					
1. 세대차가 심 하여 대화를 할 수 없다	52 5.2	35 9.3	17 2.7	3 3.9	3 3.5	4 5.1	2 2.5	8 6.8	3 3.8	6 7.7	3 3.8	2 2.5	2 2.5	2 3.2	12 15.8						
2. 대체로 존경 반한 어른이 드물다	509 51.0	183 48.7	326 52.3	40 51.9	29 37.7	60 52.2	45 57.0	47 58.0	53 45.3	46 58.2	36 46.2	42 53.8	45 56.3	30 48.4	36 47.4						
3. 대체로 신뢰 할 수 있고 존경한다	423 42.3	152 40.4	271 43.5	32 41.6	43 55.8	47 40.9	29 36.7	32 39.5	54 46.2	29 36.7	36 46.2	32 41.0	33 41.3	30 48.4	26 34.2						
4. 전적으로 신 뢰할 수 있고 존경스럽다	15 1.5	6 1.6	9 1.4	2 2.6	2 2.6	4 3.5	1 1.3	2 1.7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2 2.6						

〈표 19〉 친구끼리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주제에 가장 흥미를 느낍니까?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성 별	학 부										교 과					병 명,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인정광학					
1. 인생문제	504 50.5	202 53.6	302 48.6	36 46.8	46 59.7	61 53.0	44 55.0	46 56.8	62 53.0	37 48.1	34 43.6	31 39.7	41 51.3	29 46.8	37 48.7						
2. 사회·정치 문제	171 17.1	85 22.5	86 13.8	11 14.3	18 23.4	24 20.9	9 11.3	8 9.9	22 18.5	15 19.5	22 28.2	5 6.4	10 12.5	13 21.0	14 21.0	14 18.4					
3. 이성·애정 문제	169 16.9	69 18.3	100 16.1	18 23.4	8 10.4	13 11.3	16 20.0	14 17.3	11 14.5	11 14.3	15 19.2	16 20.5	15 18.8	10 16.1	16 21.1						
4. 문학·영화 ·연극	146 14.6	19 5.0	127 20.5	12 6.5	5 6.5	10 12.5	10 14.8	12 13.7	12 18.2	12 9.0	25 32.1	14 17.5	10 16.1	7 9.2	7 2	7 2.6					
5. 과학문제	8 0.8	2 0.5	6 1.0			3 2.6	1 1.3	1 1.3			1 1.3										

2) 再修經驗

表〈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신입생 중에서 금년도 졸업생은 64 %이고 1년 재수가 27.2 %, 2년 재수가 5.4 %, 3년 재수가 1.2 %, 4년 이상이 2.2 %이다.

性別로 보면 금년 졸업생은 여학생 (76.6 %)이 남학생 (43.2 %)보다 훨씬 많다. 남학생은 절반이상 (57.8 %)이 재수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學科別로 보면 간호과 (82.5 %), 치과위생과 (76.5 %), 보건행정과 (75.6 %), 식품영양과 (75.3 %) 순으로 금년졸업생이 많으며 가장 적은 경우는 방사선과 (44.2 %), 식품가공과 (48.1 %) 등이다.

6. 大學專攻

新入生들의 大學生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專攻에 대한 期待나 動機이다. 여기서는 大學進學의 一般的 理由, 學科志望理由, 志望學科決定 影響源, 志望學科決定時 考慮要因, 志望學科에 대한 情報源, 專攻學科理解度, 專攻과 適性, 專攻持續與否 등이 취급된다.

1) 大學進學의 一般的 理由

表〈22〉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래의 취업을 위해서 (46.6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40.1 %)도 상당히 많았으며, 깊이 있는 교양 (5.1 %), 전문지식 (4.7 %), 소질계발 (3.6 %) 등은 낮은 응답을 보였다.

性別로 보면 사회적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남학생보다 (33.2 %) 여학생 (44.3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장래의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에서는 여학생 (43.2 %)보다 남학생 (52.3 %)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學科別로 보면 장래의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보건행정과 (55.7 %), 환경위생과 (54.8 %)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식품영양과 (53.2 %)에서 가장 높았다.

2) 學科志望理由

新入生들의 각 학과 지망동기를 보면 表〈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원하던 분야는 아니지만 실력이 모자라서 지원했다 (34.1 %)와 가장 원하던 분야이므로 지원했다 (34 %)가 많으며, 그 다음이 가장 원하던 분야는 아니지만 주위의 압력 때문에 지원했다 (17 %), 원치 않던 분야인데 내 실력이 모자라서 지원했다 (8.4 %), 원치 않던 분야인데 주위의 압력 때문에 지원했다 (6.3 %) 등이다.

性別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보다 가장 원하던 분야는 아니지만 지원한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學科別로 보면 가장 원했기 때문에 지원한 경우는 간호과가 46.3 %로 가장 높다. 또 가장

<표 20> 어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까?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성 별			학 제			학 제			학 제			학 제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병 사 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명, %	
1. 광주직할시	668	220	448	48	77	41	63	61	69	81	115	78	49	62	60	41	48
2. 시	113	55	58	13	12	15	4	1	16	7	11	6	8	6	6	14	14
3. 읍·면(농촌)	204	96	108	15	24	33	14	11	24	20	17	8	12	14	10.0	9.8	18.7
4. 도 서	8	4	4	1	0	2	1	0	0	0	1	2	0	0	0	0	1
	0.8	1.1	0.6	1.3	0	1.8	1.3				1.3	2.6	0	0	0	0	1.3

<표 21> 재수해본 경험의 있음나까?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성 별			학 제			학 제			학 제			학 제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병 사 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명, %
1. 없어	636	162	474	58	37	67	51	62	64	59	34	56	66	39	43	43
2. 1년	270	145	125	18	30	31	22	15	37	16	31	15	13	18	24	56.6
3. 2년	54	38	16	1	6	10	3	4	9	1	5	6	1	3	5	31.6
4. 3년	12	10	2	0	1	3	1	0	1	1	2	0	0	2	1	6.6
5. 4년이상	22	20	2	0	3	2	2	0	0	0	5	1	0	0	0	3.9

<표 22> 자신이 보기에 다른 사람은 왜 대학에 진학하는지 같습니까?

집 단 (서류수)	전체	성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	치과의사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초교기공	인경공학	%
1. 집이 있는 고 양을 쟁기 위해기	50 5.1	19 5.0	31 5.0	2 2.6	7 9.1	3 2.6	2 2.5	3 3.7	5 4.3	2 2.5	3 3.8	8 10.3	55 6.3	5 6.3	8.1 8.1	5 6.6
2. 사회적 배접 장반기 위해 서	401 40.1	125 33.2	276 44.3	41 53.2	27 35.1	43 37.4	31 38.8	39 48.1	45 38.5	27 34.2	31 39.7	37 47.4	34 42.5	20 42.5	20 32.3	26 34.2
3. 장래의 취업 을 위해 서	416 46.6	197 52.3	269 43.2	30 39.0	36 46.8	63 54.8	42 52.5	31 38.3	57 48.7	44 55.7	34 43.6	28 35.9	32 40.0	31 40.0	31 50.0	38 50.0
4. 자기의 소질 을 계발하기 위해서	36 3.6	15 4.0	21 3.4	2 2.6	4 5.2	1 0.9	2 2.5	3 3.7	3 2.6	2 2.5	6 7.7	3 3.8	5 6.3	1 6.3	1 1.6	4 5.3
5.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해 서	47 4.7	21 5.6	26 4.2	2 2.6	3 3.9	5 4.3	3 3.8	5 6.2	7 6.0	4 5.1	4 5.1	2 5.1	4 5.0	5 5.0	3 8.1	3 3.9

<표 23> 현재 일학련 학과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질 단 (사례수)	전체 수	성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체육기공	안경광학	별 명, %	
1. 가장 원하는 분야[므로 지원했다.]	338	146	192	12	15	42	22	21	47	31	79	77	77	31	37	22	27
2. 가장 원하는 분야는 아니 지만 내실력 이 뛰어나서 지원했다.	34.0	39.0	31.0	15.6	19.5	36.5	27.5	26.3	41.2	39.2	40.3	40.3	46.3	31	37	62	76
3. 가장 원하는 분야는 아니 지만 주제의 암석 예문에 지원했다.	339	121	218	41	31	44	24	31	38	28	26	32	15	14	14	15	36.0
4. 원치않던 이인테 내실 력이 모자라 서 지원했다.	34.1	32.4	35.2	53.2	40.3	38.3	30.0	38.3	33.3	35.4	33.8	41.6	18.8	18.8	22.6	22.6	20.0
5. 원치않던 이인테 주제 의 암석 예 문에 지원했 다.	63	27	36	1	6	9	6	5	2	6	4	1	1	12	6	5	9.3

원하던 분야는 아니지만 실력이 모자라서 지원한 경우는 식품영양과(53.2%), 유아교육과(41.6%), 식품가공과(40.3%) 등이 많다.

3) 志望學科決定 影響源

新入生들이 현재 지망한 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아 결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表〈24〉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권유(39.6%)가 가장 많고 다음이 안내책자(17.5%), 선배의 영향(15.9%), 친구의 영향(14.7%), 교사의 권유(12.3%)順으로 나타났다.

性別로 보면 부모의 권유에 의한 경우는 남학생(33.4%)보다 여학생(43.5%)이 더 많으며, 선배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남학생(20.1%)이 여학생(13.3%)보다 많다.

學科別로 보면 간호과의 경우 부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으며(69.6%), 식품영양과의 경우는 교사의 권유가 부모의 권유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각 30.3%), 또 치과위생과의 경우는 친구의 영향(27.5%)이 가장 커던 것으로 나타났다.

4) 志望學科決定時 考慮要因

新入生들이 어떤 動機에서 學科를 선택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大學生活의 적응형태에 큰 영향을 준다.

表〈25〉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전망을 고려했다는 학생이 가장 많고(61.3%), 다음이 자신의 적성(21.3%), 입학가능성(8.3%), 학문적 흥미(7.3%), 사회적 지위(1.7%)順으로 고려되고 있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유아교육과의 경우 취업전망(28.2%)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적성(46.2%)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식품가공과(35.1%)와 식품영양과(27.3%)는他科에 비해 入學可能性을 그 고려한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5) 志望學科에 대한 情報源

表〈26〉에서 보듯이 大學에서 발간한 안내서에서 志望學科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學生이 가장 많다(40.1%). 그 다음이 전공한 사람(28.5%), 교사(13.2%), 잡지나 신문(9.9%), 해당학과에 문의한 경우(8.4%)順이다.

性別로 보면 대학에서 발간한 안내서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 남학생(33.9%)보다 여학생(43.8%)이 많으며, 잡지나 신문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는 남학생(15%)이 여학생(6.8%)보다 많다.

學科別로 보면 치과위생과(43.2%), 치과기공과(40.3%), 물리치료과(38.9%) 등은 전공한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은 경우가 가장 많으며, 보건행정과는他科에 비해 대학에서 발

〈표 24〉 현재 입학한 학과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주 사람은 누구입니까?

집 단 (사례수)	전체 합	성 별			학 제			과			별			법 률 률,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치과기공	
1. 선 배	152	74	78	4	18	21	11	18	21	8	19	4	6	13	9
2. 친 구	15.9	20.1	13.3	5.3	23.4	18.9	14.5	22.5	18.9	10.1	24.4	7.4	7.6	21.7	12.0
3. 교 사	14.7	16.3	13.8	7.9	15.6	9.9	15.8	27.5	18.9	8.9	11.5	20.4	11.4	13.3	17.3
4. 부 모	118	44	74	23	13	12	11	22	21	7	9	11	6	4	8
5. 인내 체자	39.6	33.4	43.5	30.3	16.9	10.8	11.8	11.3	6.3	10.1	14.1	11.1	5.1	13.3	10.7
합	956	368	588	76	77	111	76	80	111	79	78	54	79	60	75

〈표 25〉 현재 입학한 학과를 선택할 때 고려한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집 단 (사례수)	전체 합	성 별			학 제			과			별			법 률 률,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치과기공		
1. 취업전망	998	375	623	77	29	35	78	61	69	82	48	49	22	55	49	
2. 사회적 지위	61.3	62.7	60.5	37.7	45.5	67.8	78.2	85.2	70.1	60.8	62.8	28.2	68.8	56.5	64.5	
3. 학문적 흥미	17	7	10	2	3	1	0.9	3	1	1	2	2.6	1.3	2.5	3.2	
4. 입학 가능성	1.7	1.9	1.6	2.6	3.9	6	7	5	1	8	4	8	11	5	6	
5. 자신의 적성	73	29	44	6	6	6.1	6.4	1.2	6.8	5.1	10.3	14.1	6.3	9.7	7.9	
합	998	375	623	77	115	78	61	69	81	117	79	78	78	80	62	76

간한 안내서에 가장 많이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61.5%).

6) 專攻學科理解度

表〈27〉의 결과를 全體的으로 보면 대강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65.2%여서 꽤 알고 있다는 學生 4.1%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학생 0.8%를 합하면 70.1%의 학생이 자기가 전공하려는 학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가 전공할 학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은 25.8%이고 전혀 백지인 학생은 4.1%이다. 즉 29.9%의 학생은 충분한 사전정보를 갖지 못하고 입학하였다고 할 수 있다.

性別로 보면 전혀 모르고 입학한 학생은 남학생(7.1%)이 여학생(2.3%)보다 많다.

學科別로 보면 치과위생과(84%)와 환경위생과(83.5%)가 學科理解度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병리과(53.8%)가 學科理解度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7) 專攻과 適性

表〈28〉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선택한 전공학과가 그런대로 적성에 맞는다는 학생(69%)과 적성에 꼭 맞는다(8.7%)는 학생은 77.7%로 적성에 비추어 전공학과 선택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학생은 17.6%, 적성과는 동떨어졌다라는 학생은 4.6%이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식품가공과의 경우 대체로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학생이 36.8%로 他科보다 훨씬 높으며, 적성과는 동떨어졌다라는 학생도 14.5%로 가장 많다. 따라서 식품가공과의 경우 51.3%가 적성에 전공학과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專攻持續與否

表〈29〉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선택한 전공을 계속하겠다(71%)고 응답했으며, 상당수는 졸업후에 4년제 대학에 학사편입을 하겠다(21%)고 하였다. 따라서 92%가 현재 입학한 과에서 공부를 하여 졸업하겠다는 입장은 취했다. 학교나 과를 바꾸기 위해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은 4.5%, 후에 대학원에서 전공을 바꾸겠다는 학생은 3.5%로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性別로 보면 졸업후 학사편입을 하겠다거나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學科別로 보면 다시 입시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은 방사선과(8.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사편입하겠다는 학생은 식품가공과(33.8%)에서 가장 많다.

7. 大學生生活

大學生들에 있어서 大學教育의 經驗은 專攻工夫와 專攻外 活動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6> 현재 일학한 학과에 대한 정보 ■ 어디로부터 얻었습니까?

집 단 (사례수) 합	전체 980	성 별		학		학		과		별		명.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1. 교사	129	46	83	11	15	3	9	11	9	9	18	11	17	9	7
2. 잡지나 신문	97	55	42	7	7	19	4	2	13	5	8	7	8	4	13
3. 대학에서 받은 간한 안내서	393	124	269	38	31	55	32	25	40	48	22	26	24	19	33
4. 해당학과 (문의)	82	37	45	6	10	10	5	8	7	7	5	7	4	5	8
5. 전공한 사람	279	104	175	14	27	24	35	44	9	21	27	25	25	25	14
	28.5	28.4	28.5	18.4	18.2	23.7	32.4	43.2	38.9	11.5	28.4	34.6	32.1	40.3	18.7

<표 27> 현재 일학한 학과의 분야·강의내용 또는 전망동을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단 (사례수) 합	전체 1000	성 별		학		학		과		별		명. %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안경광학
1. 전혀 모른다	41	27	14	3	2	7	2	4	2	7	1	2	6	62	5
2. 알지 못하는 편이다.	258	84	174	20	27	17	36	11	21	25	14	28	17	17	17
3. 대장 알고 있다	25.8	22.2	28.0	26.0	35.1	14.8	45.0	13.6	17.9	32.1	31.6	17.9	35.0	27.4	22.4
4. 꽤 알고 있 다	652	239	413	55	39	89	36	63	83	44	58	49	36	51	51
5. 아주 잘 알 고 있다	65.2	63.2	66.4	71.4	50.6	77.4	45.0	77.8	70.9	62.8	55.7	74.4	61.2	58.1	67.1
	41	20	21	2	6	7	1	5	6	1	3	5	1	2	2
	4.1	5.3	3.4	2.6	7.8	6.1	1.3	6.2	5.1	1.3	3.8	6.4	1.3	3.2	2.6
	8	8	2.1	2.6					2.6	1.3			1	1	1.3

<표 28> 자신의 전공학과는 적성에 비추어 둘 때 어려워하다고 생각합니까?

집 단 (시례수)	전체	성 별				학				과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인경광학	
1. 나의 적성이 맞는다.	87	35	52	4	1	8	6	5	16	8	3	13	11	6	6	6	
2. 그런대로 적성이 맞는 것 같다.	8.7	9.3	8.4	5.2	1.3	7.0	7.5	6.3	13.7	10.1	3.8	16.7	13.7	9.7	7.9	7.9	
3. 대체로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다.	689	254	435	57	36	78	53	61	86	55	53	56	57	48	49	49	
4. 적성과는 동떨어져 있다.	69.0	67.4	70.0	74.0	47.4	67.8	66.3	76.3	73.5	69.6	67.9	71.8	71.8	77.4	64.5	64.5	

<표 29> 현재 선택한 전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 단 (시례수)	전체	성 별				학				과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	호	치과기공	인경광학	
1. 끝까지 계속 하겠다.	706	244	462	52	43	78	51	79	80	59	54	57	57	50	57	57	
2. 학교나 과를 바꾸기 위해 어 디서 입시 공부를 했었다.	71.0	64.7	74.8	67.5	55.8	68.4	64.6	87.2	68.4	74.7	68.4	74.0	71.3	80.6	75.0	75.0	
3. 졸업 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겠다.	45	23	22	5	5	7	6	3	4	7	1	1	1	3	3	4	
4. 출연·학사 활동에서 전공을 바꾸겠다.	209	94	115	19	26	26	16	5	32	16	13	19	18	7	12	12	
	21.0	24.9	18.6	24.7	33.8	22.8	20.3	6.4	27.4	20.3	16.5	24.7	22.5	11.3	15.8	15.8	
	35	16	19	1	3	3	6	2	5	5	5	5	5	2	3	3	
	3.5	4.2	3.1	1.3	3.9	2.6	7.6	4.3	6.3	6.3	6.3	6.3	6.3	3.2	3.9	3.9	

따라서 學生理解를 위해서는 그들의 大學生活에 대한 姿勢, 活動內容, 使命意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大學生活主力方向, 當面不安問題, 希望 課外活動分野, 大學生의 任務, 學生의 社會參與, 教授에 대한 期待, 餘暇時間利用 등이 취급된다.

1) 大學生活主力方向

新入生들에게 입학후 大學生活의 어느 부분에 가장 비중을 두겠는가를 물어 1에서 6까지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것이다. 이 等位值의 平均을 계산하고 이 平均을 비교하여 다시 性別 學科別로 그 等位를 결정한 것이다.

表<30>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입생들의 大學生活主力方向의 순위는 전공공부, 폭넓은 친구교제, 교양서적의 탐독, 자격 시험준비, 각종 써클활동, 이성교제 순으로 나타났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은 폭넓은 친구교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여학생은 전공공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남학생에 있어 전공공부는 3順位에 해당한다.

學科別로 보면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방사선과, 치과기공과 등은 전공공부 보다도 폭넓은 친구교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안경광학과의 경우는 교양서적의 탐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2) 當面不安問題

新入生들은 大學生活에 처음 발을 딛게 되므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表<31>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문제는 학교성적문제(38.7%)이며 다음이 학교생활 적응문제(18.9%), 교우문제(17.2%), 생계문제(12.5%), 이성문제(10.8%) 순으로 나타났다.

性別로 보면 생계문제에 있어 남학생(24.3%)과 여학생(5.2%)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성문제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민하고 있으며,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더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科別로 보면 치과위생과의 경우는 교우문제(28.8%)를 가장 고민하고 있으며 치과기공과는 생계문제(31.1%)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希望 課外活動分野

新入生들이 참여하고 싶은 과외활동 분야를 물은 결과는 表<3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입생들이 가장 원하는 과외활동은 麵味教養分野(49.9%)이고, 다음이 奉仕分野(16.8%), 스포츠분야(14.8%), 宗教分野(6.6%), 理念分野(6.1%), 學術分野(5.7%) 순이다.

性別로 보면 취미교양분야 및 봉사분야는 여학생이 더 원하고 있으며 스포츠분야, 학술분야 이념분야는 남학생이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學科別로 보면 종교분야는 식품영양과(13%)가 가장 많고, 취미교양분야는 안경광학과(

표 30 대학생활 종에서 가장 하고 싶은 순으로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기입하십시오.

〈표 30〉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순으로 ()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기입하십시오.											
전체 합 (단위: 명수)	성 별 남 여	학 과			교 육 기 관			체 육 기 관			평 균
		인 체 체 계	체 육 체 계								
이 쟁과 진지한 교제	4.10	3.70	4.33	4.38	3.82	4.22	3.79	3.77	4.10	3.93	3.89
체육을 친구교 제	6	5	6	5	6	4	4	6	5	5	5
각종체육활동	3.20	3.09	3.26	2.97	4.02	3.05	3.82	4.13	2.80	3.01	2.92
교양시적의 흥 미	3.23	3.30	3.18	3.55	3.48	3.50	3.34	3.80	3.04	3.28	3.20
체육	3	2	2	4	4	4	2	5	2	3	2
자체식 체준비	3.60	3.53	3.65	3.42	3.44	3.19	3.56	3.21	3.88	3.61	3.63
전선공공부	2.94	3.41	2.65	2.92	2.81	2.91	2.56	2.62	3.17	3.18	3.37
	1	3	1	1	1	1	1	1	3	2	3

〈표 31〉 본인이 가장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69%)가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봉사분야는 물리치료과(28.2%)와 간호과(23.8%)가 가장 많다.

4) 大學生의 任務

表〈33〉에서 보면 新入生들은 대학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폭넓은 교양을 쌓고(51.4%) 능력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41.8%)으로 보고 있다. 첨단의 지식습득(3.6%)이나 현실사회에 대한 참여(3.2%)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은 능력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46%)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은 폭넓은 교양을 쌓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55.8%)을 보이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능력있는 사회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가공과가 가장 높으며(53.2%), 폭넓은 교양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간호과(70%), 유아교육과(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學生의 社會參與

학생의 사회참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表〈34〉와 같다. 表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사회비판을 할 수 있으나 행동은 안하는 것이 좋다가 58.4%로 가장 많으며 학생들의 사회비판 및 집단행동은 불가피한 것이다가 22.7%, 사회에 나온 다음에 사회를 비판해야 한다가 10.9%, 학생은 학업에만 열중해야 한다가 8%順이다.

性別로 보면 비판은 할 수 있으나 행동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는 여학생(62%)이 남학생(52.4%)보다 많으며, 비판 및 집단행동은 불가피하다는 경우는 남학생(27.2%)이 여학생(20%)보다 많다.

學科別로 보면 학생의 사회비판 및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경우는 임상병리과(42.3%)와 안경광학과(39.4%)에서 높게 나타나며, 식품영양과(7.9%), 보건행정과(15.8%), 식품가공과(16%)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6) 教授에 대한 期待

신입생들이 교수에 대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였다. 表〈35〉에서 보면 신입생의 57%가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간적 지도를 원하고 있으며, 다음 28.1%가 충실히 강의를 바라며 9.3%가 학문적 연구에 전념할 것을 바라며 5.1%의 소수 신입생이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性別로 보면 남녀 학생간에 별로 큰 차이는 없다.

學科別로 보면 학생에 대한 인간적 지도를 가장 바라는 과는 임상병리과(64.5%)와 물리치료과(65.2%)이다. 충실히 강의의 경우는 식품영양과(33.3%)와 치과기공과(34.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대학생들 중 가장 하고 싶은 과외활동은?

집 단 (사례수)	전체 합	성 별		학 연		학년		학과														
		남	여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4학년	15학년		
1. 학술씨클	57	31	26	2	4	12	9	4	3	4	2.6	5.2	10.5	11.3	4.9	2.6	4	6	3	3.8	11.5	
2. 종교씨클	66	23	43	10	4	8	7	5	8	3	3	5	6.2	6.8	3.9	7.6	6	6	5	3	3	4.0
3. 체육·교양 씨클	6.6	6.1	7.0	13.0	5.2	7.0	8.8	6.2	6.8	4.7	44	47	40.0	58.0	40.2	57.1	27	42	44	44	4.9	1.3
4. 스포츠씨클	496	165	331	37	41	52	32	47	47	44	44	47	40.0	58.0	40.2	57.1	34.2	55.3	55.0	55.0	52.5	51
5. 봉사씨클	49.9	43.9	53.6	48.1	53.2	45.6	40.0	58.0	40.2	57.1	57.1	57.1	13	13	13	13	7	13	7	12	12	12
6. 이념씨클	14.8	19.7	11.8	16.9	16.9	14.9	15.0	8.6	18.8	7.8	18.8	15.0	15.0	15.0	15.0	15.0	16.5	17.1	17.1	17.1	19.7	16.0
7. 학술·봉사 종합	167	48	119	13	9	14	15	14	14	14	14	14	14	14	14	14	13	18	18	12	19	3
8. 철학·인문 종합	16.8	12.8	19.3	16.9	11.7	12.3	18.8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7.3	16.9	22.8	22.8	15.8	23.8	4.9
9. 청년·여성 종합	61	35	26	2	6	11	5	4	4	4	4	4	4	4	4	4	7	9	3	2	4	4
10. 철학·인문 종합	6.1	9.3	4.2	2.6	7.8	9.6	6.3	4.9	3.4	9.1	11.4	9.1	11.4	9.1	11.4	9.1	3.9	3.9	3.9	2.5	6.6	5.3

- 293 -

〈표 33〉 자신이 생각하기에 대학생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단 (사례수)	전체 합	성 별		학 연		학년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남	여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14학년	15학년		
1. 폭넓은 교양 을 쌓는 것	514	167	347	35	27	50	36	42	62	36	43	62	45.6	53.0	45.6	54.4	45.6	52	56	56	37	
2. 능력 있는 화이트 도는 것	51.4	44.2	55.8	45.5	35.1	43.5	45.0	52.5	49	36	49	36	49	41.9	45.0	41.9	45.6	45.6	66.7	70.0	61.3	48.7
3. 철학의 지식 을 습득하는 것	41.8	174	244	33	41	55	37	36	36	49	36	28	26	26	21	21	21	21	21	21	21	35
4. 혁신·사회에 비판적으로 참여 하는 것	3.6	4.2	3.2	11.7	7.8	2.6	5.0	2.5	2.6	1.3	1	3	3	3	3	3	3	3	3	3	3	
5. 철학·인문 종합	32	21	11	3	7	3	3	3	3	6	5	6	5	5	5	5	3	3	2	3	3.9	
6. 철학·인문 종합	3.2	5.6	1.8	3.9	6.1	3.8	2.6	2.6	2.6	7.6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3.9	

<표 24> 학생의 사회참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단 (시내수) 총 목	전체 성 별	학 교 부 분										평 균 점 수 %			
		남 성 982	여 성 372	식품영양 76	식품가공 75	환경위생 115	임상병리 78	치과위생 80	물리치료 116	보건행정 76	방사선 78	유아교육 76	간호 76	체육 76	치과기공 61
1. 학생들은 학 교에 만족 해야 한다는 것이 좋다.	79	35	44	3	8	6	5	5	7	6	11	13	3	8	4
2. 학생들은 사 회에 나온 마음에서 사회 를 비판해야 한다.	8.0	9.4	7.2	3.9	10.7	5.2	6.4	6.3	6.0	7.9	14.1	17.1	3.8	3.1	5.6
3. 학생들은 사 회 비판을 한 수 있으나 학 교에 만족하는 것이 좋다.	107	41	66	8	13	12	5	14	15	6	9	4	5	11	5
4. 학생들은 사 회 비판 및 집단행동은 불가피한 것 이다.	10.9	11.0	10.8	10.5	17.3	10.4	6.4	17.5	12.9	7.9	11.5	5.3	6.3	18.0	7.0

<표 35> 대학교수님들께 특히 기대하고 싶은 것은?

집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남 여	성 별	학 부							교 과							영, % 인경광학 73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치과기공	61	21	24	
1. 총설한 강의	27.3	99	174	24	14	36	19	20	29	23	18	24.7	31.1	27.5	34.4	32.9	
2. 학문적 연구	28.1	90	27.2	33.3	18.4	31.9	25.0	25.0	25.2	29.9	7	10	6	7	8	9	8
에 전념	9.3	9.3	10.4	8.6	5.6	9.2	9.7	6.6	10.0	6.1	13.0	8.2	9.5	10.0	14.8	11.0	40
3. 학생에 대한 인간적 지도	55.3	194	359	40	42	60	49	48	75	40	40	42	49	42	45.9	54.8	54.8
4. 사회활동에 의 참여	57.0	49	53.3	59.2	55.6	53.1	64.5	60.0	66.2	51.9	54.8	56.8	61.2	1	3	1	1.4
5. 기타	0.5	5	3	2	3.1	5.6	17.1	5.3	3.9	5.0	2.6	5.2	9.6	2	2	2.7	2.7

7) 餘暇時間利用

신입생들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복수응답케 했다. 表<36>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친구와 친지를 만나거나(22.4%), 독서를 하거나(21.3%), 신문·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20.9%)가 높게 나타났다.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는 15.1%이고, 영화, 연극, 전시회, 음악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12.5%, 종교·사회 봉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는 6.7%이며, 기술을 익힌다는 학생은 1.1%로 극히 소수이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취미활동(등산·낚시·스포츠)을 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27.3%)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독서를 한다는 학생이 가장 많다(26.2%).

學科別로 보면 친구나 친지를 만난다고 한 학생은 식품영양과(24%), 식품가공과(30.3%), 유아교육과(26.9%), 안경광학과(24.3%) 등에서 많으며, 독서를 한다는 학생은 치과위생과(30.8%), 임상병리과(27.2%), 간호과(29.9%) 등에서 많다. 취미활동에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경우는 방사선과(25.4%)와 치과기공과 학생들(23.4%)이다.

8. 生活哲學 및 進路

여기서는 주로 新入生들의 行動과 思考에 비교적 짐재적이면서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生活價值觀, 窮極的 價值, 韓國社會의 最優先課題, 大學卒業后 計劃 등을 질문하였다.

1) 生活價值觀

表<37>의 설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入生들에게 5個의 生活價值觀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순서에 따라 1에서 5까지 等位를 매기도록 하였다. 表<37>은 각 生活價值에 매겨진 等位值의 平均을 계산하고 이 平均을 비교하여 다시 性別 學科別로 價值觀의 等位를 결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新入生들의 價值觀의 順位는 經濟的으로 여유있는 生活, 남을 위해奉仕하는 生活, 趣味·藝術生活, 자신의 짐재능력을 발휘하는 生活, 他人의 尊敬을 받는 生活 順이다.

性別로 보면 2順位와 3順位에 있어 남·여간 차이가 있다. 즉 여학생은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취미·예술생활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간호과의 경우 여타의 과들과는 달리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은 특기 할만 하다. 또 치과위생과, 방사선과, 안경광학과, 치과기공과 등은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에 비교적 낮은 순위(4順位)에 두고 있다. 방사선과는 자신의 짐재능력을 발휘하는 생활을 비교적 높은 순위(2順位)에 두고 있다.

2) 窮極的 價值

表<38>에서 보듯이 대다수 新入生들은 화목한 가정(42.6%)을 가장 원했으며 그 다음이

<표 36>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냈니까? (2개를 선택하시오)

점 답 형 (사례수)	전체 합 계	성 별	남 여	학 교 활 동			학 교 외 부 활 동			학 교 내 활 동			학 교 외 부 활 동			학 교 내 활 동		
				식품영양 식품가공 제품	환경위생 환경설비 설비	일상병리 체질	치과위생 치과	물리치료 물리치료	보건행정 보건행정	방사선 방사선	유아교육 유아교육	간호 간호	체육기구 체육기구	간호 간호	체육기구 체육기구	간호 간호	체육기구 체육기구	간호 간호
1. 체비활동(등산, 낚시, 스포츠)을 한다	1,846	663	1,183	145	132	147	159	215	147	13	43	21	36	7	12	26	24	
2. 독서를 한다	278	181	97	18	24	36	18	215	147	49	46	27	20	34	46	23	25	
3. 신문, TV를 보거나 뉴스를 듣는다	15.1	27.3	8.2	12.4	18.2	16.7	12.2	8.2	20.0	40	46	27	20	34	46	23	25	
4. 기술을 익힌다	393	83	310	27	15	41	19.1	27.2	30.8	39	34	34	20	31	38	17	31	
5. 종교 단체 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한다	21.3	12.5	26.2	18.6	11.4	19.1	24.7	26.5	21.4	3	1	2	1	3	3	1	1	
6. 친구나 를 만난다	386	133	253	29	53	39	34	34	34	1.1	0.6	0.6	2.1	2.1	2.1	0.6	0.9	
7. 영화나 음악 전시회, 음악회 등에 간다	12.5	11.5	13.1	17.2	12.1	9.5	6.3	15.8	13.8	10	14	10	20	22	17	17	13	

〈표 37〉 가능하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다음 중 가장 하고 싶은 순으로 1번부터 6번까지 기입하십시오.

점단 항목 (선택수)	전체 수	성 별	남 여	학 교 부						평균·순위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업장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간호	체육기공
정체적으로 안정된 생활	2.36	2.26	2.42	2.42	2.22	2.30	2.29	2.14	2.47	2.25	2.38	2.79	2.25	2.49
취미를 살리고 예술을 즐기는 생활	1	1	1	1	1	1	1	1	1	1	1	2	1	1
3.05	3.04	3.05	3.12	3.10	3.01	2.98	2.95	3.17	3.10	3.02	3.07	3.03	2.96	2.98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생활	3	2	3	3	3	2	2	3	3	3	3	4	2	2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	2.91	3.07	2.81	2.80	2.86	2.97	3.10	3.20	2.76	2.94	3.03	2.70	2.49	3.01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생활	3.47	3.48	3.46	3.44	3.28	3.47	3.23	3.01	3.55	3.52	3.78	3.53	3.76	3.74
4.17	3.08	3.23	3.19	3.48	3.23	3.29	3.67	3.96	3.11	2.88	3.31	2.90	2.98	3.12
4	4	4	4	5	4	5	4	3	4	2	4	3	3	3

<표 38> 다음중 한 가지만 얻을 수 있게 되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점 단 (사례수) 합 계	전체 성 별 여	학 과								교 육 기 관 인 정 광 학			
		남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행정	방사선	유아교육	기 초 기 교 육	기 초 기 교 육
1. 화목한 가정	41.9	156	263	31	54	34	36	55	25	33	38	33	26
2. 건강	42.6	41.9	43.0	43.3	34.7	47.4	44.4	47.8	32.9	42.3	49.4	41.3	41.9
3. 의뢰있는 친구	22.3	86	137	19	21	25	11	17	26	22	13	18	12
4. 침내애인	22.7	23.1	22.4	25.3	28.0	21.9	14.3	21.0	22.6	28.9	16.7	23.4	15.0
5. 동	18.3	64	119	14	12	17	18	22	20	14	21	7	20
6. 명예	18.6	17.2	19.4	18.7	16.0	14.9	23.4	27.2	17.4	18.4	26.9	9.1	25.0
7. 권력	64	29	35	6	7	4	7	3	7	3	7	6	4
8. 학벌	6.5	7.8	5.7	8.0	9.3	3.5	9.1	3.7	6.1	3.9	9.0	7.8	5.0
9. 기타	32	14	18	3	2	4	2	1	3	5	0	2	3
합계	984	372	612	75	75	114	77	81	115	76	78	77	80

건강(22.7%), 의리있는 친구(18.6%), 참된 애인(6.5%), 돈(3.3%), 명예(2.5%), 권력(1.6%), 학벌(1.6%) 순으로 나타났다.

性別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거의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學科別로 보면 대체로 화목한 가정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음은 공통적이나 치과위생과, 방사선과, 간호과 등은 건강보다는 의리있는 친구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3) 韓國社會의 最優先課題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최우선과제는 表<39>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민주화가 47.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사회안정(20%), 경제적 불평등 해소(18%), 국가의 자주권 확립(5.8%), 경제성장(4.3%), 민족통일(4%) 顺序이다.

性別로 보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의 경우 남학생(21%)이 여학생(16.2%)보다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안정의 경우는 여학생(23.3%)이 남학생(14.6%)보다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學科別로 보면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경우는 환경위생과(24.8%), 보건행정과(24.4%), 식품가공과(23.4%) 등이 많은 응답을 보이고, 사회안정의 경우는 유아교육과가 37.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4) 大學卒業后 計劃

신입생들의 대학졸업후 계획을 예상하는 것은 그들의 학업이나 제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表<40>의 결과를 보면 신입생들의 76.2%는 전공과 관련된 취직 및 수련을 바라며, 타대학으로 편입은 14.6%, 개인사업 4.4%, 해외유학 2.6%, 전공과 무관한 취직 2.2% 등이다.

性別로 보면 전공과 관련된 취직 및 수련은 여학생이 더 원하고 있으며, 타대학으로의 편입, 개인사업 등은 남학생에서 더 많다.

學科別로 보면, 전공과 관련된 취직 및 수련의 경우 치과위생과(86.4%)와 간호과(86.3%)가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의 경우는 안경광학과(18.7%)가 가장 많으며, 타대학으로의 편입의 경우는 식품가공과에서(24.7%)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IV. 綜合的 論議

本章에서는 8個領域으로 나누어 조사한 것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그結果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全體入學生에서 女學生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

<표 39> 현재 한국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 (사례수) 합 계 998	전체 성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체조			방사선			유아교육			간			보호			치과기공			인정공학			영, %		
		376	622	77	36	48	77	113	36	47	80	81	117	59	46	78	36	46	30	46	26	31	47.8	47.6	47.9	46.8	46.0	45.0	58.0	50.4	46.2	58.2	38.5	57.5	41.9	40.8							
1. 정치적 민주화	47.7	179	298	36	48	77	113	36	47	80	81	117	59	46	78	36	46	30	46	26	31	47.8	47.6	47.9	46.8	46.0	45.0	58.0	50.4	46.2	58.2	38.5	57.5	41.9	40.8								
2. 경제성장	43	18	25	1	7	2	9	11.3	1.8	11.3	1.7	1.7	3.8	5.1	5.1	7.5	4	4	6	6	3	2	4.3	4.8	4.0	1.3	9.1	1.8	28	14	16	20	19	12	9	7	7.5	4.8	2.6				
3. 경제적 불평 등 해소	18.0	79	101	11	18	28	14	16	17.5	19.8	17.1	24.4	24.4	15.2	11.5	12	9	7	7	7	7	12	14	18.0	21.0	16.2	14.3	23.4	24.8	17.5	19.8	17.1	24.4	15.2	11.5	8.8	19.4	18.4					
4. 국가의 자주 권 확립	58	26	32	3	1	5	7	5	7	5	7	2	5	5	5	3	3	3	3	3	3	12	12	6.9	5.1	3.9	1.3	4.4	8.8	6.2	6.0	2.6	6.3	6.4	3.8	4.8	15.8						
5. 사회안정	20.0	55	145	18	15	23	9	12	28	14	10	29	14	10	10	16	16	16	16	16	16	10	10	20.0	14.6	23.3	19.5	20.4	11.3	14.8	23.9	17.9	12.7	37.2	20.0	25.8	13.2						
6. 민족통일	40	19	21	8	7	5	1	1	4	2	1	1	4	2	1	2	2	2	2	2	2	7	7	4.0	5.1	3.4	10.4	6.2	6.3	1.2	0.9	5.1	2.5	1.3	2.5	3.2	9.2						

<표 40>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할 생각입니다?

집단 (사례수) 합 계 998	전체 성 별 남 여	식품영양			식품가공			환경위생			임상병리			치과위생			물리치료			보건체조			방사선			유아교육			간			보호			치과기공			인정공학			영, %		
		378	620	77	19	7	1	2	80	114	1	2	2.5	2.5	4.3	5	117	78	79	78	5	6.3	5	64	57	64	64	82.1	72.2	82.1	86.3	86.3	86.3	1.3	1.3	1.3	2	2	2	6.7			
1. 해외유학	2.6	5.0	1.1	1.3	2.6	0.9	2.5	2	5	1	2	2.5	2.5	4.3	5	117	78	79	78	5	6.3	5	64	64	64	64	82.1	72.2	82.1	86.3	86.3	86.3	1.3	1.3	1.3	3.2	3.2	3.2	6.7				
2. 전공과 관련 된 취직 및 수련	760	254	506	56	40	89	61	70	90	61	76.3	86.4	76.9	76.9	76.9	5	117	78	79	78	5	6.3	5	64	64	64	64	82.1	72.2	82.1	86.3	86.3	86.3	1.3	1.3	1.3	3.2	3.2	3.2	6.7			
3. 전공과 무관 한 취직	76.2	67.2	81.6	72.7	51.9	78.1	4	4	4	4	4	4	0.9	0.9	1	1	117	78	79	78	5	6.3	5	64	64	64	64	82.1	72.2	82.1	86.3	86.3	86.3	1.3	1.3	1.3	3.2	3.2	3.2	6.7			
4. 개인사업	44	34	10	2	10	1	3	3	3	3	3	3	3.8	3.8	2	2	117	78	79	78	5	6.3	5	64	64	64	64	82.1	72.2	82.1	86.3	86.3	86.3	1.3	1.3	1.3	5	5	5	14			
5. 타직 향으로 던 일	146	62	84	15	19	14	14	5	19	14	14	14	1.7	1.7	1	1	117	78	79	78	5	6.3	5	64	64	64	64	82.1	72.2	82.1	86.3	86.3	86.3	1.3	1.3	1.3	5	5	5	14			

적인 指導方案이 多角的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他大學들에 비해 여 학생의 비율이 특히 높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生活指導 및 職業指導方案이 수립되어야 하며, 女學生들의 特性을 살릴 수 있는 教養科目의 活用 및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一般的 身上特性중에서 볼 수 있는 特徵中에 新入生들이 光州 이외의 지역을 주된 성장지로 하고 있는 비율이 51%이고, 出身高校가 光州이외인 경우가 36.7%이며, 38.7%의 학생이 保護者와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환경적 변화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적응문제와 함께 보호자없이 자신의 行動에 대한 自由와 책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더불어 36%의 학생이 再修이상을 경험하고 있어 이들 신입생들이 과거 어느때 보다 異質의 集團속에서 生活을 영위하게 되며, 따라서 不適應問題를 쉽게 초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적응문제는 大學生活中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응답결과와 現在 當面問題를 물음한 문항의 응답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전공공부 다음으로 폭넓은 친구교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當面問題에서도 학교성적문제 다음으로 學校生活適應問題(18.9%), 교우문제(17.2%)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입생들의 환경변화와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적응문제는 學業問題을 포함한 大學生活 全般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양과목이나 교과과정 이외의 교양강좌를 심화, 강화할 필요가 있다.

經濟的 值面에 관련된 결과들을 볼 때 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副職開發과 알선이 學生生活指導의 일환으로 필요하며 또한 장학금이나 용자등이 교육적 차원에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入學과 滿足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大學進學의 뚜렷한 目標意識을 심어 주어 가능하면 빨리 自己探索을 통한 自己正體感을 형성토록 助力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專攻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여 신입생들이 자기의 專攻領域에 대한 本質의 價值와 重要性을 깨달아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제반행사를 통해 소속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의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간관계나 써클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써클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양이나 취미·학습 등에 관한 새로운 써클의 육성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卒業后的 計劃에 있어서 전체의 76.2%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在學中에 이들에게 취직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업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대학을 취직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대학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大學이 취업 및 진로의 지도와 병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大學教育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1988 학년도 신입생들의 실태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서 중시되어야 할 측면들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연구가 학생이해에 필 요한 모든 측면을 포괄한 것이 아니며, 설문지가 갖는 研究方法으로서의 제반 제한점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신입생들에 대한 지속적 研究와 大學生活을 통 하여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The Characteristics of 1988 KHJC Freshmen

Yang-hyuk Kim

Kang-hee Lee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 Abstract <

The newcomer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KHJC freshmen population. The total number of newcomer was 1040 : male student, 404 : female student, 636. To the newcomer questionnaire, the number of respondents was 1000.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covered following areas of newcomer's characteristics.

- 1) Personal identification, in which 4 items such as age, long-term residential address, residential conditions, religious affiliate, were included.
- 2) Family relations, in which 9 items such as father's or mother's age, their vocation, school career, number of family number, family atmosphere etc. were included.
- 3) Economic status, which contains such items as total income of the family, the source and adequateness of monetary support during school life.
-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ich contained questions such as wanted type of friend, generation gap, topic of conversation with friends, etc.
- 5) Highschool life : year of highschool graduation, city or province of respondents' highschool located were questioned.
- 6) Study plan : the motive and procedure in deciding to apply ones department, academic areas, and etc. were questioned.
- 7) College life : kinds of difficulty in college life, extracurricular activity wanted, expectation to the professors, and etc. were surveyed.
- 8) Life philosophy, in which living values, furture plan, and etc. were questioned.